전남 어가 '든든한 지원군' 전남도·어촌특화지원센터

기획·디자인·'바이씨' 직거래몰 등 '원스톱' 지원…어가 억대 소득
전남도 "가공·유통 메카 자리매김하도록 어촌센터와 다양한 지원"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원해 전남 어촌에서 생산한 '바다 김 그대로 김국', '마음미역' 등 어촌특화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어 어촌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상품은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상품 기획부터 포장 디자인, 시제품 생산까지 지원하고, 해당 어촌이 상품을 본격 생산하면 전남 어촌 온라인 직거래망 '바이씨'(buysea.co.kr)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다. 각 어촌의 여건, 역량 등을 점검해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시제품을 생산한 고흥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은 지난해 22만4297봉(매출 1억7481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20년 1월 해조류가공공장을 준공한 고흥 신평어촌계는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을 받으면서 2020년 '마음미역', 2022년 '마음담은미역'과 2023년 '사각사각 다시마' 등 3가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매년 2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남 임하 어촌계의 '바다 김 그대로 김국'은 2017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 수산기업, 완도해양바이오센터 등과 주문자 상표 부착(OEM) 양해각서를 체결해 3년여의 연구·개발, 평가·개선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김국은 마른 물김에 각종 양념을 더해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먹거나 떡국, 라면 등 기호에 따라 첨가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개발됐다. 김국에 사용된 김은 최상급 물김으로 임하도에서 전통 지주식으로 생산되는 모무늬돌김과 해남의 참김을 배합한 것이다. '바다 김 그대로 김국'은 바이씨, 해남 로컬푸드, 해남 미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수출과 홈쇼핑 진출도 협의 중이다.

이밖에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장흥 수문 키조개 스낵, 해남 송호 전복 스낵 등 전남 어촌 특산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시제품 평가 과정에 들어가는 등 조만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원을 요청한 전남 어촌 자체적으로 생산한 단순 가공한 상품을 비롯 전남 어촌·수산 전문기업 등을 연계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고차 가공 상품에 대해 기획, 포장 디자인,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어촌이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고재유·강기정·강운태·박광태(왼쪽부터) 등 전·현직 민선 광주시장들이 19일 광주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역대 광주시장들 '광주 발전' 지혜 모았다

고재유·박광태·강운태·이용섭 전 시장들 참석 다양한 의견 제시

역대 민선 광주시장들이 모여 광주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역대 민선 시장을 초청해 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선 2기 고재유 시장과 3~4기 박광태 시장, 5기 강운태 시장, 7기 이용섭 시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7기 초반인 2018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전직 시장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민선 8기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시장들이 광주발전의 길을 닦고 개척해준 것을 토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군공항 이전사업 등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시정에 대해 설명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2000년 시작한 광산업이 민선 3~7기를 거쳐 꾸준히 발전했다. 당시 70여 개에 그쳤던 관련 기업이 현재 300여개, 종사자도 8000여명에 달하게 됐다"며 "관련 지원법이 최근 마련된 만큼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시정을 잘 펼쳐주길 바란다"며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강운태 전 시장은 "매번 비엔날레를 관람하는데 올해는 작품은 물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파빌리온(특별관)과 주제 등이 잘 구성된 것 같다"며 "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처럼 민선 8기 시정이 시민을 부드럽게 모시면서 내실은 강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전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을 특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축적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광주가 있을 수 있었다"며 "역대 시장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살고 싶은 섬' 신안 위해 적극 지원"

김영록 지사, 신안서 도민과의 대화

흑산공항 등 민선8기 성과 소개
천일염 산지거점·유통·연구 센터
1도 1뮤지엄·평화의 숲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 메카 도약 지원

"102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이 '가고 싶은 섬'을 넘어 '살고 싶은 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신안군 암태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한 250여명의 신안 군민들에게 흑산공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연도교 건설 등 민선 8기의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소개한 뒤 "신안군이 전남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전남도도 신안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안 군민들은 보라색(퍼플섬)·붉은 색(압해읍 애기 동백) 옷을 입고 현장을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지켜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남도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신안도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민들에게 박수를 유도하자 김 지사도 "신안은 섬, 갯벌, 풍부한 햇빛, 바람 등 천혜의 생태 자원으로 관광부터 에너지까지 다방면에서 전남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잘 살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안의 자랑인 명품천일염의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연구 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1도 1뮤지엄', 평화의 숲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도읍 라일락 정원 조성(5억) ▲장산면 대성산성 주변 탐방로 신설·정비▲하의면 국도 2호선(삼도대교~응곡 방면) 회전 교차로 변경 설치 ▲신안소방서 증도 119지역대 신설 ▲지방도 825호선(임자면 진리~도찬리 간 10.9㎞) 포장 ▲흑산도 방면 관광객 뱃삯 50% 감면 요청 ▲신안 천일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들은 뒤 담당 국장들에게 구체적 답변을 유도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안=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 '탄력'

자전거길 정비·안전개선 공모 5개소 선정…14억천만원 확보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에 5개소가 최종 선정돼 지역맞춤형 자전거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재난안전 및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14억1000만원 투입으로 2012년 4대강 정비사업 이후 그동안 자전거 이용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담양 영산강 및 섬진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곡성 보성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영암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엔 순천이 선정됐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순천 조례동 엔씨(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를 잇는 자전거길은 주거, 상권, 여가시설이 밀집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이 많고 도로 노후화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자전거도로 2km 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절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자전거 활성화 관련 공모에 적극 대응해 전남을 '자전거 타고 싶은 지역'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